

호날두, 사우디 클럽과 계약 임박...스페인 '마르카' 보도

등록 2022.12.21 10:59:24

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(37)가 중동에 새롭게 동지를 틀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.



[루사일(카타르)=뉴스시스] 백동현 기자 = 6일(현지시간)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포르투갈과 스위스의 경기, 호날두가 교체출전 후 기회를 놓치고 아쉬워하고 있다. 2022.12.07. livertrent@newsis.com
[서울=뉴스시스] 박지혁 기자 =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(37)가 중동에 새롭게 동지를 틀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.

스페인 '마르카'는 21일(한국시간) "현재 아랍에미리트(UAE)에 있는 호날두가 곧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나스르와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"고 보도했다. "계약서 사인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며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"라고도 했다.

호날두와 알 나스르의 계약설은 월드컵 기간에 흘러나왔지만 호날두 측이 부인해왔다.

지난달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(EPL)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었던 호날두는 2022 카타르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결별했다.

호날두의 폭로성 인터뷰가 문제였지만 2022~2023시즌 개막을 앞둔 지난 여름 프리시즌부터 구단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. 당시 호날두는 유럽축구연맹(UEFA)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요청했고, 맨유는 거부하며 평행선을 달렸다.

마르카는 알 나스르와 호날두의 계약 조건에 대해 연봉 2억 유로(약 2735억원) 수준으로 추정했다.

호날두는 카타르월드컵을 통해 개인 5번째 월드컵 무대를 밟았지만 8강전에서 모로코에 저 눈물을 펄펄 쏟으며 퇴장했다.

2030년 월드컵 개최를 노리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를 영입하면서 인지도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

한편, 호날두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두바이에서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fgl75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